

## 로버트 브라우닝의 「서신」: 시대의 기독교 변증\*

문 영 수  
(호원대학교)

**Moon, Young-soo. "Robert Browning's 'An Epistle': The Christian Apologetics in Victorian Era."**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3 (2018): 45-65. Browning deplors the contemporary trend of depicting faith and belief as civilization and science develop, and human reason has priority. He gives his own message to his contemporaries who are marvelling at positivism, scientific discovery, and material prosperity. At that time, the Victorian era and world view responded to the real demands of the people of the time, and ignored the invisible yet eternal world of reality, the divine world and providence. While staring at pitching of the British people's view of life values due to the rise of economic prosperity and the evolutionary theory, the poet experiences the wonder of God, which never shakes, and leaves it as a poem. It is a dramatic monologue, telling Lazarus' resurrection owing to Jesus Christ: "An Epistle." This poem is the Christian apologetics in Victorian era. In this poem, Browning presents Karshish, an Arab in the background of Palestine at the late 60s AD, but he wants to tell a contemporary story of its own. He claims strongly that despite scientific and medical advances, mankind can not go against God's creation and providence. And he chants God does not disappear or shrink for a moment because of positivism and higher criticism, but as it has been from the beginning, he also recites, God still and forever exists. (Howon University)

**Key Words:** "An Epistle," Christian apologetics, Jesus Christ, Karshish, Robert Browning

### I. 들어가며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의 「서신」("An Epistle" 1854)<sup>1</sup>은 그의

\* 이 논문은 호원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개인적 종교 성향이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난 시로서 관심을 끈다. 그러나 정작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시인이 왜 그러한 시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 목적과 동기다. 브라우닝은 어렸을 적부터 비국교도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훈련 속에 런던 근교에 있는 요크가교회(York Street Chapel)에 출석하며 경건을 쌓았다(Griffin 50). 14세 이후 볼테르에 매력을 느끼고, 『잡다한 시들』(*Miscellaneous Poems*)을 통해 셸리(P. B. Shelley)를 접한 후에는 그의 경건성이 다소 흔들리기 시작했다(Collins 9), 그 이후 곧 회복되었고 거기에 결혼 후 아내(E. B. Browning) 덕택에 더욱 견고한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 브라우닝은 『폴린』(*Pauline* 1833)이나 『패러셀서스』(*Paracelsus* 1835) 등을 시작으로 신<sup>2</sup>에 대한 그의 관심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작품 속에 기독교 교리를 의도적으로 반영한 최초의 시가 『크리스마스이브와 부활절』(*Christmas-Eve and Easter-Day* 1850)이다. 그리핀(Hall Griffin)은 교리에 충실한 기독교적 성향의 시를 꾸준히 써온 브라우닝에 대해서 “그의 초기 시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 찬사가 들어 있다”고 평한다(296). 이러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브라우닝과 그 사실을 보여주는 시풍의 최 정점을 「서신」에서 발견한다.

「서신」이 발표된 1854년경에는 오랜 동안 유럽 사회와 그들의 삶의 근간을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왔던 기독교 사고방식과 그 철학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19세기 영국과 그 국민들은 자신만만하여 그들이 유지해왔던 신에 대한 신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였고, 그 당시 런던은 세계 제 1의 도시이자 금융 중심지가 되었다. 영국의 함대가 오대양을 휩쓸었고, 그 상선들은 세계의 항구들을 석권하고 있었다”(Shelley 365). 또한 1835년에 독일에서 출간되어 예수 그리스도

<sup>1</sup> 원제는 “An Epistle Containing the Strange Medical Experience of Karshish, the Arab Physician”이다.

<sup>2</sup> 이후로 기독교의 “하나님(하느님)”을 “신”으로 표현한다. 다만 그냥 “신”으로 표현했을 때 거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을 포함하여 여러 이교적 잡신과 귀신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표현상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브라우닝이 말하는 “신”이 결국 모두 기독교적 신이기 때문에 한국적 개념으로서 “하나님(하느님)”이라는 표기가 합당하나 종교적 색채를 띠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신”으로 표기 한다.(Moon 48).

도를 한갓 인간으로만 끌어 내린 스트라우스(David Friedrich Strauss)의 『예수의 생애』(*Das Leben Jesu*)가 훗날 엘리엇(George Eliot)으로 개명한 에반스(Mary Ann Evans)에 의해 1846년에 영어로 번역되어(Altick, *Victorian People and Ideas* 221) 영국으로 유입된 것도 한 몫을 한다. 여기에 그 당시 자유주의자들이 함께 하면서 역사 비평학은 성경의 계시와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한다. 길모어(Robin Gilmour)는 19세기 영국 교회에 타격을 준 것은 무신론자와 과학자들의 돌팔매가 아니라 역사적 상대주의의 신랄함이라고 주장한다(93). 이 즈음에 역사의 원칙들을 성경에 적용하는 성경비평(biblical criticism)<sup>3</sup>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나타난다. 주로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환영 받았던 이러한 성경비평의 분위기는 그 당시 영국의 상당수 신자들에게도 성경의 권위를 의심을 하게 했다(Shelley 399).

고전 학자들과 실증주의 철학자들은 성경을 마치 호머(Homer)나 버질(Virgil)의 원전을 다루듯 학구적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성경은 더 이상 신적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도 아니며, 단지 이것저것 뒤섞인 인간들의 기록물”에 불과 했고 “순수한 신의 말씀도 아니며 무오 한 기독교 신앙의 탄탄한 토대가 될 수 없었다”(Altick, *Victorian People and Ideas* 220). 영국국 교도의 힘이 약화되면서 기독교의 힘과 영향력이 쇠퇴해져, 그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역할에 강한 회의를 품게 한다. 게다가 고위 성직자들의 부패도 이러한 분위기를 부채질 했다. 길모어는 그 시대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뿐 아니라 기독교의 도덕적 측면을 의심했고, 이러한 의심이 공공연히 표출되었다”고 다소 포괄적으로 서술한다(86).

아놀드(Matthew Arnold)는 이러한 세태를 「도버 해변」(“Dover Beach”)에서 “믿음의 바다는/한때, 그렇게도, 충만했는데, 그래서 지구의 해변에 두루/마치 화려한 거들의 주름처럼 접혀져 흘렀는데./그러나 이제 나는 단지 들을 뿐/그 우울

<sup>3</sup> 성경비평은 흔히 “하등(Lower)”과 “고등(Higher)”으로 나뉜다. 하등비평은 본문의 문제들과 씨름하며 여러 성경사본을 서로 비교 분석하여 가장 오래되고 원본에 가까운 본문을 찾아내고자 한다. 하등비평은 정통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큰 문제점은 없다. 고등비평에서는 성경도 다른 고대 서적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방법론의 기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통 신앙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고등 비평의 가장 중요한 관심들 가운데 하나는 소위 “역사적 예수”를 찾는 것이었다. 이것은 행간을 읽어서 실제 예수는 과연 어떤 인간이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고, 긴 물러가는 포효소리만을(The Sea of Faith/Was once, too, at the full, and round earth's shore/Lay like the folds of a bright girdle furled./But now I only hear/Its melancholy, long, withdrawing roar.)"이라고 한탄한다(Abrams 1384).

이즈음 영국 사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신조(creed)가 필요했다. 사회 일각에서 옥스퍼드 운동(Oxford Movement)<sup>4</sup>을 비롯한 복음주의 바람이 일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지탱해 줄 도덕적, 윤리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1859년 11월에 성경적 창조론의 권위에 타격을 입힌 다윈(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이 나왔고, 이어서 186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임을 주장하여 기독교 교리를 전복 시킨 르낭(Ernest Renan)의 『예수의 생애』(*La Vie de Jésus*)가 출판된다.

바로 이즈음에 브라우닝은 「서신」을 세상에 내 놓는다. 그는 시 창작 초기부터 기독교에 관심을 보여 왔지만 「서신」을 발표할 즈음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라보며, 기독교 신자로서 최고의 경건을 가슴에 안은 채, 믿음을 잃어가는 시대적 추세를 우려 했다. 브라우닝과 뜻을 같이 한 경건주의자들은 “예수가 신적 존재이고 신구약 성경이 모든 면에서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전제를 반박하는 고등비평가들 앞에서 여지없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Altick, *Victorian People and Ideas* 207). 리차즈(B. A. Richards)는 “브라우닝이 믿음이 쇠락하는 상황을 안타까워 한 나머지 그 시대 기독교 변증가로 자처해서 나섰을 것이다”고 조심스럽게 타진한다(223). 기독교 변증이란 초기 기독교 시기부터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개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변호하고자 하는 총체적 행위를 말한다.

과연 「서신」은 시인의 개인 신앙고백에서 발견된 기독교 변증이자 아울러 한

<sup>4</sup> 이 운동은 19세기의 사회적 위기에 대한 반응이고, 전인적인 움직임이자 영국 사회에 대한 우려의 표시였다. 아울러 교회에 대한 세속의 침입을 반대했다(Shelley 371). 또한 교회가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에라스투스설(Erastianism)과 종교상의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교회가 중세 때 누렸던 권위를 회복하는 동시에 교회를 신비주의와 경건의 자세로 복원시키고자 한 운동이다. 1833년에 키블(John Keble)이 행한 “순회재판설교”(Assize Sermon)가 발단이 된 이 운동은 뉴먼(John Henry Newman)과 퓨지(Charles B. Pusey) 등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확장했다. 영성회복과 경건주의를 내세워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이 운동은 그 당시의 문화 전반에 대단한 영향을 주었다.

시대를 경건하게 바로 잡고자 하는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시인의 사명을 펼친 시라고 볼 수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서신」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 해답을 찾고자 한다. 그러한 일환으로 한 시인이 반종교적으로 흐르는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기독교를 옹호하며 기독교 정통 교리를 지키고자 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고, 그것이 갖는 시대적 그리고 종교적 의미를 모색한다.

## II. 「서신」: 브라우닝의 기독교 변증

「서신」의 화자 아랍 의사 카쉬시(Karshish)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Bethany)를 지날 때, 간질병 증세로 죽었던 나사로(Lazarus)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접한다.<sup>5</sup>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음에도 그리스도의 “일어나라”는 한 마디에 다시 살아난다. 의사인 카쉬시는 바로 이 사건에 의학적 호기심으로 접근하여 탐구한다. 이 시는 성경에 기록된 나사로 부활 사실을 근거로 그 일이 있던 약 30년 후를 배경으로 한다. 한 아랍 의사를 등장시켜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나사로 사건을 보게 하는데, 그러한 진행 과정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건은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라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나사로 뿐 아니라 화자 카쉬시의 삶과 신앙의 관점에서의 대 전환, 즉 영적 변화를 이끌었음을 이야기 한다.

이 시는 우선 제목부터 “서신”이라고 붙인 시인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 A D 1세기 기독교 복음 전도자인 바울(St. Paul)이 기록한 신약성경의 여러 서신서들<sup>6</sup>에게 붙여진 ‘서신’이라는 표현을 연상하게 한다. 시인의 의도는 첫 행과 7행의 서두에 각각 서신 발신자와 수신자의 언급에서 더 두드러진다. “카쉬시, 지식의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는 자가 . . . 우리 의술에 극히 해박한 아비브 선생에

<sup>5</sup> 이 시의 제재가 된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44절의 내용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시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나사로의 부활이후의 변화는 순전히 브라우닝의 의도된 가상 상황이다.

<sup>6</sup>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이다.

계,”(Karshish, the picker-up of learning's crumbs[1] . . . To Abib, all-sagacious in our art,[7]).<sup>7</sup> 유사하게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서신서인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처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sup>8</sup>(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To the saints in Ephesus, the faithful in Christ Jesus NIV Ephesians I. 1). 이 시의 처음 20행에 이어지는 이러한 형식에 대해서 러스(James F. Loucks)는 “굳이 사도 바울 서신을 참고했다고만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지만(*Explicator* 32), 이러한 형식에 근거해 판단하면 브라우닝은 이 시의 화자 카쉬시로 하여금 성경의 서신체 형식을 모방하게 함으로써 이 서신체 시의 청자인 아비브(Abib)와 독자를 향한 어떤 선교적 혹은 기독교 변증적 의도가 있음을 암시하고자한다. 아울러 그러한 이유로 이 시가 적어도 신약성경 바울 서신의 형식상의 틀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와 동시에 내용상으로는 구약성경 창세기 처음 부분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다. “이 하나는 인간의 육체 그 분이 경이롭게 만드신,/마치 풍선처럼 부풀리어, 마치 반죽 다루듯/이 지구라는 공간에 가뉘 다스리기 위해/다른 하나는 그 분의 입김을 혹 불어 만든, 인간의 영혼(이다)”(This man's-flesh he hath admirably make,/Blown like a bubble, kneaded like a paste,/To coop up and keep down on earth a space/That puff of vapor from his mouth, man's soul [3-6]).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상의 메아리임을 부인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는 창조주 신이 만물과 인간의 창조주임을 보여주는 성경의 첫 머리를 장식하는 책이다. 브라우닝은 창세기의 이미지와 틀을 시의 첫머리에 도입함으로써 이 시의 내용과 주제상의 방향을 암시한다.

「서신」은 아비브에게서 의술을 배운 카쉬시가 대단한 열정과 호기심 속에서

<sup>7</sup> James F. Loucks, ed., *Robert Browning's Poetry: Authoritative Texts Criticism*. (New York: Norton, 1979), p. 127. 이후 「서신」본문 인용은 이 책에서 한다.

<sup>8</sup> 본 논문에서 인용되는 우리 말 성경 구절은 한글 성경 개역개정판에서 가져 온다.

여러 곳을 여행하며 수집한 신기한 의학 사례를 그 선생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한 서신체 극적 독백(dramatic monologue)이다. 서신체 보고 형식이라는 점에서 화자 카쉬시로부터는 신약 성경 기록의 중심인물인 사도바울이 연상된다. 24-33행에서의 카쉬시 행적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에 서술된 사도바울의 그것이 연상될 정도로 유사하다. 「서신」과 고린도 후서를 나란히 이어서 비교해 본다.

나는 수고를 많이 했고,

...

또한 시골 노변의 이편으로 진격한다는 소문과 더불어  
모두 불길에 휩싸여 있어요:

...

검은 스라소니가 으르렁 대며 술을 단 귀를 쫓긋거렸지요;

...

나는 울부짖었으며, 지팡이를 던졌고, 그 짐승은 사라졌어요.  
도둑들은 두 번이나 나를 강탈하고 폭행했으며,  
그래서 마을에서는 저를 스파이라고 몰아 세웠습니다;

I have shed sweat enough,

...

Also, the country-side is all on fire  
With rumours of a marching hitherward:

...

A black lynx snarled and pricked a tufted ear;

...

I cried and threw my staff and he was gone.  
Twice have the robbers stripped and beaten me,  
And once a town declared me for a spy; (24-33)

...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과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1:23-7).

또한 직업이 의사라는 측면에서 화자 카쉬시는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의사 누가(Luke)를 떠올리게 한다. 카쉬시 안에 바울과 누가 두 인물의 성향이 같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브라우닝의 인물 설정의 의도성이 감지된다. 누가는 선교적 메시지가 담긴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저자이고, 바울은 그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다. 그러므로 브라우닝의 “카쉬시”라는 인물 설정은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종교적 성향을 띠는 차원을 뛰어 넘어 노골적으로 기독교 변증 의도를 암시하고자 하는 설정이다. 만약 이 가정이 타당하다면 이 시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바울서신들,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시의 서두부터 구약성경 창세기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형식상으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모방하는 방법 등은 브라우닝이 신에 대한 체험적 경이로움을 가지고 기독교 변증을 펼치고자 하는 시 창작 의도의 서론에 불과하다. 브라우닝의 기독교 변증 의도의 본론은 앞서 언급한 바 카쉬시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닐 때 겪는 여러 위험 상황들이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겪는 위험의 요소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여기에서도 브라우닝의 숨은 의도가 엿보인다. 기독교 교리를 전하는 과정과 여정이 쉽지 않듯이 카쉬시의 경우도 그렇다는 것은 카쉬시의 모든 여정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동시에 포괄적으로는 빅토리아 시대의 기독교의 위기 앞에서 그것을 변증하고자 하는 시인의 입장의 어려움까지도 던지지 암시한 것일 수도 있다.

카쉬시가 밟는 여정의 장소는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영적, 종교적 배경 도시들이다. 이 시를 통한 시인의 의도, 더 나아가서는 시인의 계산된 전략을 이해하면 이 지명들이 그냥 선택된 도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성경 상에 있는 지명이 함유하는 의미와 그곳에 숨겨진 복음적 깊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강하다 못해 노골적이다. 모두 네 개의 도시 중에 소알(Zoar)은 창세기 19장의 내용에 연유 한다.<sup>9</sup> 소알은 인간의 죄악으로 멸망이 임박한 소돔을 떠나는 롯(Rot)에게

<sup>9</sup> 소알은 성경상의 지명으로 하늘로부터 유향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를 털을 때에 롯이 피신한 곳이다(창세기 19:22). (Thou hadst admired one sort I gained at Zoar 「서신」 60).



신이 피하라고 명령한 바로 그 도시이다. 브라우닝의 선택의도를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악으로 멸망하는 도시로부터의 도피처로 주어진 곳이라면 인간 구원의 메시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긴밀한 선교적 의도로서 혹은 기독교 변증의 의미 전달의 의도로서 선택된 지명은 다름 아닌 여리고(Jericho 21), 예루살렘(Jerusalem 34, 52) 그리고 베다니(Bethany 36)이다.<sup>10</sup> 베다니는 화자 카쉬시의 목적지이자 이 시의 주된 내용의 배경이 되는 도시이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잇는 여행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까지의 거닐었던 복음 선교여행길이다. 브라우닝이 이러한 길목들을 임의적으로 선정했다 하기에는 이렇듯이 그 정확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의 근거가 있다. 시의 내용상으로 카쉬시가 이 도시들을 방문한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시를 역사적으로 들렀던 시기와 불과 30여년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화자 혹은 시인의 선교적 혹은 기독교 변증의 숨겨진 의도는 이 시에서 줄곧 언급되는 질병들의 나열에서도 나타난다. 이 시의 처음 80행 전후에서 여러 질환들이 나열된다. 의사인 화자로서 자연스러운 전개다. 그 자연스러움 속에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화자의 의도가 또한 숨어 있다. 이 시에 나오는 여러 질환들은 시의 배경이 되는 AD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로 유행한 여러 질환들이고, 공교롭게도 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친구약 성경에 언급된 여러 사건들에 빈번히 나타나는 사례들이다. 가령, 37행에서 언급된 일종의 페스트 같은 역병(plague-sores)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욥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가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팔레스타인 및 근동 아시아 땅의 보편적 질병이다. 59행의 나병(leprosy)은 사무엘하, 열왕기하, 역대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언급되는 그 땅에서의 불치의 병의 상징이다. 67행의 옴(itch)도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사사기, 사

<sup>10</sup> 이 세 지역을 연결하는 여행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순례한 여행길과 거의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려 올라가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여리고를 들렀는데 이 시의 여행 여정도 그것과 동일하다.

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미가, 나훔, 마가복음, 갈라디아서, 디모테 후서에서 언급된다.

그런데 44행과 80행에서의 간질(falling-sickness, epilepsy)의 언급은 화자가 더욱 관심을 갖는 질병이다. 화자가 판단하는바 관찰 대상자인 나사로가 죽은 원인질환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간질에 대한 성경 상의 언급은 마태복음 4:24, 17:15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9:14-29과 누가복음 9:37-43에서는 귀신들림과 연관시켜 나온다. 화자가 이러한 성경의 내용과 나란히 놓으면서 간질병을 언급하기까지의 여러 질병들의 나열은 죽은 자도 살리는 신비한 의술을 펼친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 출현을 위한 예표적 발걸음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시는, 화자가 지니고 있는 것과는 유별난 의술을 펼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하며 주제에 무게를 실어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그 자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지만, 그러한 기이한 체험을 한 후에 그의 삶의 변화가 카쉬시의 관심을 끈다. 부연하자면, 처음 시가 시작될 때는 카쉬시가 의학적 사례를 수집하는 것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후반 부에 들어서는 카쉬시가 어떤 영적 기적의 사례를 수집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카쉬시가 수집한 사례의 주인공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후의 변화가 기대 되고 목격되는 것 같지만, 결국 시의 결말에는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 화자 카쉬시의 종교관이 변화된 것으로 귀결 된다.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아이러니에 직면한다.

비록 브라우닝이 극화한 내용이지만 브라우닝은 자신이 설정한 인물 카쉬시가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도록 원격조정하고 있다. 카쉬시는 어떤 위협과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기한 의학적 사례를 수집하는 동일한 열정으로 그 의학적 현장 속에서 영적 사례들을 추적한다. 그 사건의 정점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자리 한다. 브라우닝은 카쉬시가 다니는 장소와 성경 상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행적이 묻어 있는 곳과 일치시킴으로써 카쉬시의 영적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나사렛 동네에서 온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육체에 대한 치료에서 머무르지 않고 영혼에 대한 치료, 더 나아가서는 전 인격적인 치료를 행함으로써,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내세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신에 대한 경이로움에 힘입어 기독교 변증적 메시지를 은연중에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전달하려는 시적 화자, 카쉬시는 현실 속에 표면적으로는 과학적 탐구 방식을 존중해야 하는 의사이다. 그리고 그는 아랍 사람이다. 여기에서 시인의 기독교적 변증을 담론으로 펴고자 하는 그 숨은 의도를 발견한다. 아랍권은 문화적 종교적으로 기독교와는 이질적이다. 이질적이라는 표현을 넘어 최극단이다. 아랍인들은 그들의 종교 정서상으로 성경보다는 코란이나 이교의 경전에 더 가깝다. 그러한 사람, 그 중에서도 공부를 한, 그것도 의사가 기독교적 신 예수를 믿게 된다는 설정과 구도가 분명한 기독교 선교적 혹은 변증적 의도다. 이교도 의사라 하면 이시의 시간적 배경인 AD 1세기 당시 기독교 신앙과는 이질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을 법한 인물이다.

경제번영과 진화론의 대두로 영국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요동침을 바라보면 서 시인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에 대한 경이로움을 간직한 채 그것을 한편의 시 「서신」으로 남긴다. 이 시는 브라우닝의 신앙과 신학의 절정이자 집대성이다. 한 시인의 이러한 몸부림이 그 당시 시대적 격류를 거스를 수는 없었지만, 브라우닝은 시대의 한 목소리로서 나름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서신」은 극단의 기독교적 성향을 띠는데 차라리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는 시에 가깝다. 이시가 기독교를 설명하고 제시하는 브라우닝의 여러 시들 중에 단연코 극단적 기독교 성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sup>11</sup>

### III. 극적독백과 어우러진 기독교 변증

화자 카쉬시의 행동 배후에는 고도의 전략가 시인 브라우닝이 조종자로서 버

<sup>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린(Guerin)은 다음과 같이 「서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차원의 평가를 내린다. “브라우닝은 나사로의 기적에 혹은 기독교의 타당성에 결코 관심도 없다; 그는 이교도 카쉬시나 믿음이 있는 나사로의 무지와 미신에 관심조차 없다”(Browning is not concerned either with the miracle of Lazarus, or with the validity of Christianity; he is not concerned with either the ignorance or the superstition of the pagan Karshish—or of the believing Lazarus. Guerin 132). 비평가가 가질 수 있는 주관성의 범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케린의 견해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티고 있다. 이 시의 형식이 극적독백임을 감안한다면 카쉬시 뒤에 숨어 있는 시인 브라우닝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카쉬시는 여러 질병을 선생 아비브에게 성실히 보고하는 의학도로서 역할을 하지만, 시가 진행되면서 독자들은 카쉬시가 아비브를 교묘히 따돌리며 궁극적으로는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전략을 눈치 챈다. 선생에게 그러한 의도가 발각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카쉬시는 신중하면서도 교묘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선생을 거슬리게 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선생도 설득시켜야 하는 선교적 목적을 지향한다. 화자 카쉬시는 이러한 전략을 은연중에 펼친다. 그 목적은 시인 브라우닝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신의 불변의 진리와 능력을 역설하고자 함과 맥락을 같이 한다. 물론 거기에는 다윈과 콩트 같은 진화론자나 실증주의자들에게 반감을 실어 보내는 따끔함과 신랄함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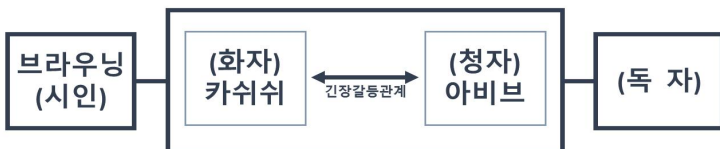
요컨대 브라우닝과 화자 카쉬시 모두 기독교 변증가이다. 브라우닝이 카쉬시라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며 배후에서 자신의 의도를 교묘히 펼치고 있다면, 그러한 브라우닝의 조종에 순응하며 시의 행간에서 화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카쉬시는 아주 은근히 그의 선생 아비브를 따돌리며 본연의 목적을 수행해 간다. 카쉬시의 죽은 나사로에 대한 몰입과 그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사는 억제되는 상황 속에서도 너무 강력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독자들에게는 들키지만 청자인 선생 아비브에게는 들키지 않은 채 안전하게 넘어간다. 극적독백이라는 형식이 주는 묘미다. 시인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화자 카쉬시는 시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략가이다.<sup>12</sup> 69행에서 이야기의 핵심인물 나사로를 “그 사람(The Man)”이라고 가볍게 암시하는 듯 하다가 다음 행부터는 무게를 실어 표현한다. “바로 그 사람이 제 곁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그 사람의 질병이 논의의 주제입니다”(The very man is gone from me but now,/Whose

<sup>12</sup> 시인 브라우닝은 퇴락하는 시대적 신앙의 조류와 긴장관계에 있는 전체 구조를 독자에게 제시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브라우닝은 화자 카쉬시와 청자 아비브의 긴장관계를 전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이교도 카쉬시는 의학적 기적을 써 내려가다가 역시 이교도인 선생 아비브에게 주체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계속 범한다. 그럼에도 그는 선생을 끊임없이 의식해야만 하는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이 극적독백의 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묘미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화자 카쉬시 배후에는 시인 브라우닝이 숨어 있다.

ailment is the subject of discourse 76-7).

실제로 이 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긴장이 서두에서부터 흐른다. 시 전체를 이미 구상해 놓고 써 가는 시인 브라우닝은 자신이 만든 무대 위에 의학도 화자 카쉬시를 올려놓고 있다. 카쉬시는 의사로서 신기한 종교적 기적 체험에 직면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선생에게 쓰고 있는 이 서신이 종교적인 것 보다는 과학과 합리, 증거가 확실한 의학 그리고 실증 등을 보여 줘야 함에 골몰해야 한다. 그래서 81행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그저 비몽사몽(trance)으로 치부해 버리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후반부에 있을 기가 막힌 국면 전환, 즉 나사로가 반드시 죽었으며 그러한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다는 사실을 설파하는 극적 반전을 더욱 극대화하는 하나의 변장술에 불과하다.

곧이어 105행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생명 중의 생명”(life of life),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암시하더니, 이어서 107행에서 “내생”(after-life)이라는 종교성 짙은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한다. 그런가하면 141행 이하부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완전 변화된 삶의 모습 속에서 그는 비록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화자의 요지는 “나사로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체험했으며 그곳은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곳”이라는 거침없는 기독교적 내세관이다. 가령 “그의 심령과 생각은 그 곳에 있습니다. 비록 그의 육체가 이 땅에 있지만 말입니다”(His heart and brain move there, his feet stay here. 185)가 그 적절한 예이다. 이렇듯이 카쉬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사로가 부활을 체험한 후 인생관과 가치관 내지는 내세관이 변화되었다는 점이다(Bergman 783). 이러한 표현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의 메아리다(3:20). 결국 카쉬시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다. 나사로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는 전지전능한 신으로, 사랑의 신으로, 그리고 창조주로 표현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신으로 존재한, 그렇지만 성육신한 신임을 선포한다(McCrie 107). 이것은 브라우닝의 신을 향한 믿음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보여준다(Hermann 30).

그렇게 치료받은 이 사람은 그때 그 치료자를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바로 신 자신으로 여깁니다,  
잠시 동안 육체를 입고 오셔서 거하신,  
세상의 창조자이며 주관자로!

This man so cured regards the curer, then,  
As-God forgive me! who but God himself,  
Creator and sustainer of the world,  
That came and dwelt in flesh on it awhile! (267-70)

이렇듯이 의학적 근거를 추적하는 중에 카쉬시는 점차적으로 신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게 되고, 이것은 신을 향한 그의 경이로움의 표현으로 발전한다. 다시 말해 시적 화자 카쉬시의 표면적 행위는 의사로서 의학적 경험과 증거를 추적하고 그 자료를 탐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리고 중국에 가서는 신앙적 혹은 영적 체험(spiritual experience)과 증거를 추적한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이 시는 카쉬시가 자신의 신앙적, 종교적 체험, 고백 등을 어떻게 교묘히 숨기면서 그의 선생인 아비브에게 순수 의학도로서 충실한 보고를 할 것인가를 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카쉬시는 부담과 갈등 속에 매몰된다. 그의 탐구의 방향이 그리고 변모하는 과정이 의학도의 본분을 벗어나는 관찰과 탐구이기에 선생 아비브로부터 받게 될지도 모르는 비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모색해야만 하는 부담은 상존한다.

브라우닝은 이 부분을 여타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카쉬시가 아비브로부터의 비난을 미연에 피하도록 시를 기획한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극단적인 옹호로 인하여 혹여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브라우닝은 먼저 화자이자 주인공인 카쉬시를 아랍출신의 의사로 설정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AD 1세기의 아랍 지역은 이슬람교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의 다신교가 지배적인 곳이다. 브라우닝은 그러한 이교도가 기독교 신앙에 몰입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기독교 교리의 진리의 절대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들래니(Bill Delaney)의 견해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그의 화자를 아랍사람, 이교도로 설정함으로써 예수의 선지자나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의 명성을 펼쳐 보여주고자 함에 전혀 동기를 숨기지 않는다”(1). 그리고 보다 강력한 신의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메시지의 무게를 극적독백과 아이러니 수법 속에서 그 눈금을 교묘히 속이고 있다. 화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브라우닝은 작품상에서 숨는듯하지만 실제로 브라우닝은 자신의 목소리를, 즉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 아이러니 하지만 숨김으로써 숨기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를 읽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의혹이 드는 것은 화자 카쉬시를 시인 브라우닝과 동일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원래 브라우닝은 시인 자신을 화자 뒤에 숨기기 위해 극적독백의 형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화자 카쉬시는 카쉬시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 결미를 향해가면서 카쉬시는 바로 브라우닝 자신임을 조심스럽게 확신할 수 있다. 다윈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의 퇴락과 회의주의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를 향해 강하게 호소하고픈 안타까운 심정에서 브라우닝은 카쉬시라는 그것도 기독교의 배경과는 이질적인 아랍 의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신의 대변인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당시 위기에 직면한 기독교 신앙을 강하게 변증하는 한 인물인 카쉬시를 내세우며 시인은 그 뒤에 숨어 있다. 숨어 있는 만큼 화자 카쉬시는 바로 브라우닝의 확실한 그림자이다. 오히려 브라우닝 자신이다.

브라우닝은 이 화자를 통해 좀 더 강력하게 직선적인 기독교적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숨긴 채, 넌지시 드러내고자 하는 다소 객관적 입장에 놓여 있는 제 삼자처럼 시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 시의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브라우닝은 아래 인용 구절을 시의 초반에 드러내면서—실제로 그렇게 못했지만—시가 결론을 향하도록 메시지를 마무리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자기네 부족 나사렛출신 의사 덕택에:  
-말하길, 그 의사가 “일어나라” 하니 그가 살아났대요.

-That he was dead and then restored to life  
 By a Nazarene physician of his tribe:  
 -'Sayeth, the same bade "Rise," and he did rise. (99-101)

그러나 이 시는 끝날 때까지 카쉬시의 표면적 중립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시인이 그 당시 독자들의 회의적이며 실증적인 정서를 일단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무엇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던지시 던져 줌으로써 더욱 강렬한 효과를 거두고자 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한 의도적인 효과가 극적 독백의 형식과 어우러져 펼쳐진다.

이 시의 화자인 카쉬시와 청자인 아비브는 공히 모두 의사로서 치료하는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브라우닝의 의도대로 서로 다른 입장에 놓여있다. "의술에 극히 해박한"(all-sagacious in our art 7) 선생 아비브는 브라우닝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고등비평가 내지는 진화론을 옹호하는 과학적 실증주의자를 대표한다. 반면 의학적 사례 수집에 골몰하는 의학도 카쉬시는 브라우닝 동시대의 정통 신앙을 고수하고자 하지만 시대와 대중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신자 부류를 대표한다. 카쉬시는 표면적으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을 의학적 현상에 결부하는 것 같지만, 그는 이 사례를 영적 혹은 종교적 관점으로 몰입해 간다. 그러므로 카쉬시의 진정한 관심사는 시 제목에 나와 있는 "기이한 의학적 체험"(Strange Medical Experience)이 아니라 "기이한 영적 체험"(Strange Spiritual Experience) 이다(Crowell 131). 제목부터 아이러니가 숨어 있다.

이렇듯이 이 시는 내용과 형식을 망라하여 극적요소를 선보인다. 그러나 이 시가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극적 요소는 사람의 변화다. 여기에서는 화자 카쉬시가 먼저 나사로의 변화를 목격한다. 그런데 시가 마무리 될 즈음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카쉬시 자신임이 암시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극적인 것은 없다. 일상적인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화학적 변화다. 그러한 변화는 사상과 가치관이 바뀌어 삶이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병을 치료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극히 획기적인 변화이다. 이것은 아마도 카쉬시의 선생 아비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변화일 수도 있다.



다소 둔한 독자라 할지라도, 이 시의 서두부터 카쉬시가 관심을 갖는 것이 표면과는 다르게 의학 사례 수집이 아니라 영적 체험 사례에의 몰입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장치는 시인인 브라우닝에 의해 설치된다. 가령 자신의 스승에 대해서 지극히 존경과 충성을 표현하는 부분에서조차 그는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의 창조주의 섭리에 대해서 시치미 떴고 서술해간다(3-6). 이러한 카쉬시의 내면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실적으로 아비브의 충실한 제자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나사로 부활 사건도 의학도 입장에서 서술해야 하고 여러 소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미신이고 속임수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그것들을 보고해야 한다. 이것은 카쉬시에 있어서 크나큰 갈등과 긴장 요소이다. 이렇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카쉬시와 아비브 사이의 긴장과 갈등관계 속에서 “카쉬시의 이성에서 나오는 과학적 회의주의와 나사르가 경험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놀라운 증거를 받아들이려는 억누를 수 없는 충돌 사이의 긴장”이 이 시가 담고 있는 극적 아이러니다(Crowell 131). 이러한 극적 아이러니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의 노골적인 신을 향한 경이로움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마감한다.

바로 신이신 그분! 아비브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되세요?  
 그렇듯이 전지전능하신 신은 역시 사랑이 충만하신 분—  
 그렇듯이, 천둥같이 인간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 내가 생명을 창조했고, 그 생명이 여기 고통치네!  
 내 손이 빚은 얼굴, 내 속에서 바로 그 얼굴을 발견하고  
 그대들은 권능도 없고, 내 권능을 가질 수도 없지,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사랑을 주었소,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러니 그대들 위해 죽은 나를 사랑해야만 하오!”  
 그 미친 사람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테요: 이상하지요.

The very God! think, Abib; dost thou think?  
 So, the All-Great, were the All-Loving too—  
 So, through the thunder comes a human voice  
 Saying, “O heart I made, a heart beats here!  
 Face, my hands fashioned, see it in myself!

Thou hast no power nor mayst conceive of mine,  
 But love I gave thee, with myself to love,  
 And thou must love me who have died for thee!”  
 The madman saith He said so: it is strange. (304-12)

시의 장엄한 피날레는 이제까지의 모든 진행 상황을 정리 및 통합하는 장면이자 동시에, 이 시가 힘주어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 교리와 복음의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요약이다. 겉으로는 의학 사례 수집과 분석에 충실한 화자 카쉬시는 나사로의 사례를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되어 열정적 호소를 터뜨리는 감정을 도저히 감출 수 없었다(Cunnington 83).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신의 궁극적 나라를 보여주는 바로 신 그 자신이라는 것이다(Woolford 226). 마지막 행에서 나사로를 “그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과 “이상하지요”<sup>13</sup>라는 표현이 다소 거스르기는 하지만 위 구절은 이 시의 결정판이다. 위 구절을 다소 면밀하게 관찰하면 여기에서 카쉬시의 이중적 언술을 발견한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 한 바 “이상하지요”라는 표현 심층에 흐르는 것과 같은 의사로서의 의례적이고 객관적인 자세이다. 다른 하나는 신의 존재를 계시하는 숨 가쁘면서도 끊어질 것 같이 토해내는 듯한 자세이다(Bergman 784). 브라우닝이 이 시를 쓰면서 표현하고자 오래 기다렸던 표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는 동시대의 시대적 흐름에 일침을 가한다. 아울러 다윈의 진화론을 일축함은 물론이다. 너무 강한 메시지이다 보니 화자는 청자의 눈치를 살피며 시의 마지막을 모호하게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sup>13</sup> 위 두 표현 “그 미친 사람”과 “이상하지요”는 이 시가 지니는 극적독백의 극적요소, 즉 화자와 청자의 상호역학관계를 보여준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선생 아비브를 의식해 “그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나 읽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카쉬시는 영적세계에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상하지요”라고 번역했지만, “신기하지요,” 혹은 “기이하지요”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 마지막 시구가 시인의 의도차원에서 그렇게 부정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브라우닝이 그러한 효과까지 노렸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IV. 나가며

문명과 과학이 득세하여 인간의 이성이 우선시 되는 시대일수록 신앙과 믿음을 경시하고 신이 주는 신비적 세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브라우닝은 그러한 동시대의 흐름을 안타까워한다.

브라우닝은 「서신」의 배경과 인물을 비록 AD 60년대 후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선택했지만, 그는 동시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는 과학에로의 솔림으로 신의 세계와 성경의 권위가 추락한 동시대에 일종의 영적 경고를 던진다. 과학과 의학이 진전이 되어도 신의 창조와 그 섭리를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는가를 마치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남을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됨을 설명할 수 없듯이 바로 그러한 세계가 신이 주관하는 세계임을 던지시 그렇지만 강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그 신이 실증주의와 고등비평 때문에 잠시 사라지거나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래왔듯이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고 역사를 펼친다는 것을 힘주어 노래한다.

「서신」에서 화자 카쉬시는 아니 시인 브라우닝은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저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권한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그러한 세계를 충분히 보고 있다. 실증주의, 과학적 발견 그리고 물질적 번영에 경이로워하며 몰입하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메시지를 토한다.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 및 세계관은 그 시대 사람들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한 나머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실체의 세계, 즉 신의 세계와 섭리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렸다.

「서신」은 브라우닝 작품 중 결코 걸작이라는 평판을 받지 않는다. 감미롭게 쓰인 그의 사랑시 만큼이나 서정적이고 시적이미지가 탁월한 것도 아니다. 또한 독자들에게 강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본격적 극적독백답게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다른 유명한 극적독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다소 역동적이며 극적인 면모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은 브라우닝 연구자들에게서 소외되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받아 왔다. 그들은 브라우닝이 이 시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혹은 이 시에 적용되는 시와 비평의 주요 기교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 왔다(Guerin 132).

영문학사상 여러 편의 17세기 형이상학과 시들을 제외하고, 「서신」만큼 노골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드러내 선교적 목적과 기독교 변증적 의도를 보인 시도 드물다. 이 시만큼 성경의 사실에 충실한 시 또한 없다. 이 시는 단순한 믿음과 종교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는다. 기독교 교리의 궁극적 메시지인 생명, 부활, 영생을 말한다. 브라우닝은 동시대 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갈 모든 세대의 회의주의자들에게 그리고 무신론자들에게 점잖은 경고를 준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어떤 시인도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감히 하지 못한 시대의 종교적 사명감을 쏟아낸다. 그는 빅토리아 시대 사도바울과 같은 시인 사도(poetical apostle)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McCrie 107). 「서신」에 대해서 “브라우닝이 기독교 역사상 한 주요한 사건을 재구성 한 것으로서, 그리고 19세기 정통 기독교에 반기를 든 그 당시 지적이며 신학적인 기류에 일침을 가하는 선언”이라는 엘틱(Richard Altick)의 평가는 무척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MLN 494).

## 인 용 문 헌

- Abrams, M. H., et al., ed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5th ed. vol. II. New York: Norton, 1986. Print.
- Altick, Richard D. “Browning’s ‘Karshish’ and St. Paul.” *Modern Language Notes*, Vol. 72, No. 7(Nov. 1957): 494-6. Print.
- \_\_\_\_\_. *Victorian People and Ideas*. New York: Norton, 1973. Print.
- Bergman, David. “Browning’s Monologu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Soul.” *ELH*, Vol. 47, No. 4(Winter, 1980): 772-87. Print.
- Collins, Thomas J. “Shelley and God in Browning’s Pauline: Unresolved Problems.” *VP*, 3(1965): 151-60. Print.
- Crowell, Norton B. *A Reader’s Guide to Robert Browning*. Albuquerque: U of New Mexico P, 1972. Print.
- Cunnington, Susan. *Studies in Browning. Four Poems: Saul. The Epistle of Karshish the Arab Physician. A Grammarian’s Funeral. Old Pictures in Florence*. Sagwan Press, 2015. Print.
- Delaney, Bill. “An Epistle Containing the Strange Medical Experience of Karshish, the Arab Physician.” *Masterplots II: Poetry*, Rev. edition(Jan. 2002): 1-3. Print.

- Gilmour, Robin. *The Victorian Period: The Intellectual and Cultural Context of English Literature 1830-1890*.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3. Print.
- Griffin, W. Hall and Harry Christopher Minchin. *The Life of Robert Browning*. Hamden: Archon Books, 1966. Print.
- Gurein, Wilfred L. "Irony and Tension in Browning's 'Karshish.'" *VP*, 1(1963): 132-9. Print.
- Hermann, Edward A. G. *The faith of Robert Browning*. London: Forgotten Books, 2015. Print.
- Loucks, James F. ed. *Robert Browning's Poetry: Authoritative Texts Criticism*. New York: Norton, 1979. Print.
- McCrie, George. *The religion of our literature: Essays upon Thomas Carlyle, Robert Browning, Alfred Tennyson, etc.* London: Forgotten Books, 2018. Print.
- \_\_\_\_\_. "Browning's An Epistle...of Karshish." *Explicator*, 52(1993 Fall): 30-3. Print.
- Moon, Young-soo. "A poet's dedication to an age: A study on Browning's optimism."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34.3 (2008): 47-68. Print.
- [문영수. 「시대를 향한 한 시인의 노력: 브라우닝의 낙관주의 연구」. 『영어영문학 연구』 34(2008 가을): 47-68.]
- Richards. B. A. *English Poetry of the Victorian Period 1830-1890*.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0. Print.
- Shelley, Bruce L. *Church History in Plain Language*. Nashville: Thomas Nelson, 1995. Print.
- Woolford, John and Daniel Karlin. *Robert Browning*.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6. Print.

문영수

주소: (54058) 전북 군산시 호원대 3길 64 호원대학교 교양과

이메일: ysmoon@howon.ac.kr

논문접수일: 2018. 06. 17 / 심사완료일: 2018. 07. 31 / 게재확정일: 2018. 08. 08